

거부해도 꾀꾀하게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

1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 바로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나?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 주지 않겠다." 3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저희를 치실 것입니다." 4 그러나 이집트 왕은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의 일이나 하라!" 라고 했습니다. 5 또 "보라. 이 땅에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로 하여금 일을 그만하게 만드는구나" 하고 바로가 말했습니다.

• 이스라엘을 더 혹독하게 대하는 바로

6 바로 그날 바로는 그 백성들의 감독관들과 반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7 "너희는 백성에게 벽돌 굽는 데 필요한 짚을 더 이상 공급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가서 짚을 모아 오게 하라. 8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전과 동일하다. 그 할당량은 줄여 주지 말라. 그들은 게을러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9 그들에게 일을 더 고되게 시켜 일만 계속하게 하고 쓸데없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라." 10 감독관들과 반장들은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로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겠으니 11 너희는 짚을 찾을 만한 데로 가서 스스로 주워 오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줄여 줄 수 없다'라고 하셨다." 12 그래서 백성들은 이집트 전역으로 흩어져 짚으로 쓸 만한 그루터기를 모아 왔습니다. 13 감독관들은 일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전에 짚을 나눠 주었을 때와 같은 양을 채워야 한다." 14 바로의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반장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어제와 오늘도 전과 같은 생산량을 채우지 못했느냐?"라며 때리고 욕박질렀습니다.

3 묵상하기

첫 만남부터 바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날카롭게 반응합니다(2절, 7-9절).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그저 노예인 민족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로는 이집트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이집트의 신인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신이 명령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이런 반응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3:19-20, 4:21).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바로처럼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듯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사명이 내게 있습니다.

4 적용하기

바로와의 첫 만남이 성과 없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듯이 나의 믿음을 선포할 때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세요. 묵묵히 믿음으로 걷는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하고 오히려 상황이 나빠져 의기소침해 있지 않았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을 다짐할까요?
- ② 아무도 몰라주고 때때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누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제가 믿는 주님을 흔들림 없이 믿고 전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1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 바로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나?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 주지 않겠다."

3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저희를 치실 것입니다."

4 그러나 이집트 왕은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의 일이나 하라!"라고 했습니다.

5 또 "보라. 이 땅에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로 하여금 일을 그만 하게 만드는구나" 하고 바로가 말했습니다.

• 궁금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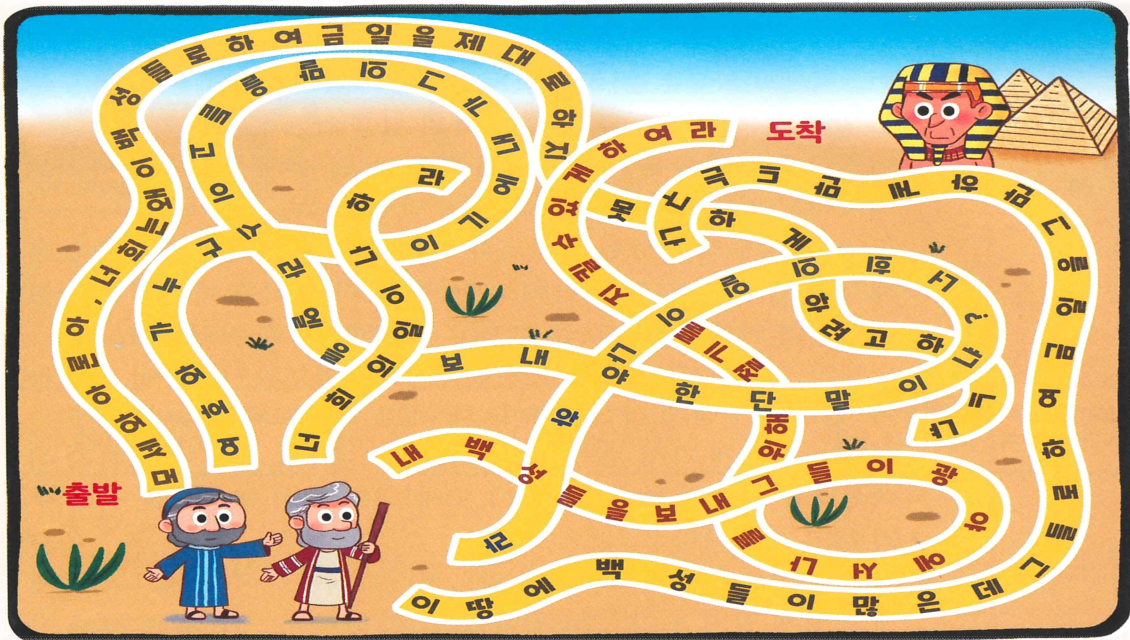
- * 절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해진 날
- * 전염병: 병의 균이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옮는 병

• 말씀 씨앗

마침내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을 심판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집트 왕 바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어요. 바로는 마음이 딱딱해져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3 말씀 새싹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바로를 만나러 가요. 바로에게 전해
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찾아가세요.



5 말씀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알맞은 그림에 모두 0표 해 보세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6 기도하기

하나님, 제가 의도한 대로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
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요.